

#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욕실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

## -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

김 현 지(경희대학교 석사과정) · 오 혜 경(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은 2019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문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특히 욕실의 경우, 작은 공간에서 많은 행위가 일어나므로 여러 설비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체적, 심리적인 불안감과 안전사고를 염려하게 되는 공간인 만큼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욕실은 보다 세심히 계획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욕실의 실태와 그에 대한 거주노인들의 평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노인주택 설계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사례조사연구로서 2005년 6월 14일부터 6월 30일에 걸쳐 서울,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용면적 132㎡ 이하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비교적 건강한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노인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필요한 치수를 실측하고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욕실의 공간을 보면 대부분 욕실공간이 좁다고 하였고 다른 공간을 줄더라도 욕실의 면적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욕실의 위치는 거실보다는 침실과 가까운 곳을 더 선호하였으므로 욕실은 가능한 한 넓게 배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침실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둘째, 욕실의 설비 및 가구에 있어 위생기기인 변기, 세면기, 욕조의 높이를 조사해 본 결과, 변기와 욕조의 높이에 대한 불만사항은 거의 없었고, 세면기의 높이는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세면기의 경우, 키가 클수록 세면기 높이에 불만족하고 있어 높이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70대 미만의 연령에서는 세면대 주변에 수납이 가능한 선반을 선호하였던 것에 반해 7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세면대의 밑이 활동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많아질수록 활동하기 편리한 욕실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욕조의 높이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높은 연령의 집단에서는 욕조를 선호하는 반면, 낮은 연령 대에서는 샤워공간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였다. 한편 노인들이 욕실 수납장 크기가 작아 불편해하고 있었고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수납형식을 원하고 있어 가능한 한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가구를 준비해 주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셋째, 욕실의 안전장치에서 안전 손잡이와 비상 호출기는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거주자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욕조나 샤워 공간 주변의 안전 손잡이가 가장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 이 논문은 2005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고, 연구되었음.

변기 주변의 안전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답해 노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안전 손잡이의 디자인이 필요하였다. 비상호출기의 경우, 70세 미만의 노인들은 손으로 벨을 눌러 말을 할 수 있는 스피커를 선호하였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손으로 누르기만 하는 초인종을 더 선호하여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였다.